

국악공연의 관람 결정요인 척도 타당화

A Validation Study on Scale of Determinant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s

전주희*, 장인희**, 최배석*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Juhee Jeon(joyjeon82@korea.kr)*, Inhee Chang(ih3740@naver.com)**,
Baesuk Choi(cbsk00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공연시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대중 선호도를 보이는 국악공연의 소비자 확보와 증가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악공연의 관람 결정요인 척도를 타당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뒤 국악공연 소비자 유형별 관람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KJ법을 이용한 개방형 설문 결과를 8개 요인, 총 65문항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개 요인, 35문항이 추출되었고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반 한국성인의 국악공연 관람 결정에 있어 흥미유발요인, 명성·실력요인, 정서·정보적 요인, 창의성요인, 가격합리성요인, 사회관계요인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둘째,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의 일반적인 경향은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중 가격합리성요인과 흥미유발요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서·정보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국악공연 | 관람 결정요인 척도 | 타당화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scale of determinants for wat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s to activate the market by procuring and increasing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consumers that exhibit generally low preference in the performance market. Accordingly, FGI was conducted on seven employees and professionals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and then open survey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eight factors and a total of sixty-five items using the KJ method to find the viewing decision factors per consumer typ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s. Afterwards, a six-factor and thirty-five items were extracted after conduct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tructural appropriateness, and then the feasibility of the composi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viewing decision factor scale was verified.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for general Korean adults making decisions to view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s, there was positive impact in the order of interest-creating factors, fame and talent factors, emotional and information factors, creativity factors, reasonable price factors, and social relation factors. Second, the general tendency of decision factors to view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s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in reasonable price factors and interest-creating factors among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viewing decision factors, while emotional and information factor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low.

■ keyword : | Korean Traditional Music | The Validation of Viewing Decision Factor scales | Validation |

I. 서론

2018년 5월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이 발표되었다. 새 예술정책은 문화비전 2030의 3대가치를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는 맞춤형 예술정책으로 설계한 4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모두 '사람과 삶을 중심'으로 정립된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이다[1].

『2019 공연계 주목해야 할 키워드 6』에 따르면 2018년 새롭게 등장했던 개념인 '워라벨(Work-and-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2019년 공연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비환경요인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19년 '주 52시간제'가 정책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과 그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올로(YOLO :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 '소확행',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 '플라시보 소비(가심비가 높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습관)' 등의 라이프스타일의 키워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 여가생활 변화 실태조사』에서 근무 외 시간 활용에 있어 '문화예술 관람'을 기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연 관람은 대표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3].

그러나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와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조사한 공연 재 관람 의향에 대비하여 2018년도 공연 실제 관람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두 항목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람의 기준과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는 내용 및 수준(29.7%)과 관람 비용의 적절성(24.9%)이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5]. 즉 공연 관람의향이 실제적인 관람(공연 구매)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선택의 기준과 걸림돌 등으로 대표되는 관람 결정요인이 존재하고 이는 공연 장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공연 장르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연시장에서 국악은 타 장르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낮은 대중 선호도를 보이는 대표적인 공연 장르이다.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 실시된 공연 중 가장 높은 횟수를 차지하는 장르는 연극(뮤지컬 포함, 122,720회)으로 나타났다. 양악(오페라 포함, 14,866회), 복합(13,242회), 국악(4,764회), 무용(발레 포함, 3,809회)의 순서로 나타나 우리나라 공연시장에서 연극 장르는 시행 횟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르별 관객 수를 살펴보면 연극은 시행 횟수와 마찬가지로 관객 수(18,586,176명) 역시 전 장르 중 가장 많다. 그러나 국악의 관객 수(1,069,329명)는 양악(5,028,959명), 복합(3,258,600명)보다 적을 뿐 아니라 시행 횟수가 가장 낮았던 장르인 무용(1,081,221명)보다도 적은 관객 수를 보인다. 또한 유료 관객 비율 역시 연극(47.1%), 무용(38.4%), 복합(34.1%), 양악(29.4%)보다 국악(25.6%)이 적다[6]. 즉 국악은 공연 횟수 및 관객 수가 적고, 특히 유료로 관람하지 않는 대표적인 공연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의 욕구 또는 취향을 분석하여 이를 수용한 창작과 제작, 또한 경제적 수익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공연의 시장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기존 국악 공연시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공연 활성화와 공연 관람 후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공연 관람 결정요인에 관한 사전연구는 연극, 무용, 음악 등 타 장르보다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타 장르에서 개발되었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척도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악 장르가 다른 예술과는 달리 참여를 통해 관람 및 만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전통예술의 참여동기 요인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편에 그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악공연의 선호도를 높이고 관객 즉 공연구매자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보편타당한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의 척도를 개발하여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총 7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에 FGI를 실시하고 KJ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개방형 설문을 자료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총 8개 요인, 65문항으로 정리한 뒤 임의표집 된 한국 성인 남녀 527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 리커트 폐쇄형 질문지를 작성하여 설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국악공연의 범위 및 특성

국악(國樂)은 전통음악 즉 예로부터 계통을 이루어 전승되어 오는 음악을 가리키는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며 오늘날 국악의 범주에는 새롭게 창작된 신국악, 창작국악, 국악가요, 퓨전국악, 월드뮤직 등이 포함되었다. 박현승, 허식(2013)은 국악이라는 용어에 악(樂)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한국무용과 같이 무(舞)가 강하게 관련되는 장르 또는 탈춤과 같이 무(舞)와 가(歌)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복합적 장르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전체를 내포하는 개념인 전통예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통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참여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그 개념이 지나치게 농악, 풍물 등의 전통 연희에 치우쳐 있는 것은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7].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기존 연구를 통해 그 범주를 나눠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중음악 둘째, 줄풍류, 가곡으로 대표되는 풍류음악, 셋째, 민요, 농악으로 대표되는 민속음악, 넷째, 판소리, 산조, 시나위, 잡가로 구분되는 예술음악, 다섯째, 무속음악, 불교음악, 유교음악과 기타 종교음악으로 나눌 수 있는 종교음악 마지막으로 창작국악으로 세분할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범주를 나누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범주를 모두 국악으로 정의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 국악공연의 관람 결정요인 척도

본 논문의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의향이 공연 구매패를 통해 실제적인 관람으로 이어지는 최종 선택의 기

준을 의미하는 관람 결정요인은 국악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 장르의 연구에서 관람동기, 참여동기, 관람요인, 선택요인 등으로 명명하여 사용되었다.

국악공연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이미 다른 분야나 공연 장르에서 사용되어온 공연 관람 결정요인을 면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재화(2010)는 창작국악의 유형에 따른 공연관람객의 관람 만족 및 관람 가치에 대해 분석하여 창작국악의 수용층 확대와 창작국악공연의 관객기반 확충을 위해 마케팅믹스 4P이론을 토대로 관람 만족요인을 작품, 관람료, 공연장, 홍보의 총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람객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즉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된 요인을 그대로 수용하였다[9].

서혜운(2015)은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가 국악공연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공연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10]. 이 연구에서 사용된 관람 결정요인인 감성적 동기와 이성적 동기는 문갑수(2010)의 뮤지컬 관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2008년 연극뮤지컬 관람객 조사보고서』의 결과에 연구자가 임의로 요인 명을 붙여 명명한 것이다[11][12].

김보름, 천혜정(2016)의 국악공연 관람객의 관람동기 및 관람만족도가 재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휴식추구 동기, 교육적 동기, 사회친화 동기, 사회지위 동기, 예술적 동기, 외부평판 동기, 편익적 동기 총 7가지로 공연 관람 결정요인을 구분하였다. 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과 공연관람 특성(교육 경험 유무, 공연관람횟수, 공연관람 지출비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3].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공연 관람 결정요인은 클래식공연의 관람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김지영(2009)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14].

이와는 달리 박현승, 허식(2013)은 전통예술이 일반적인 공연예술과는 달리 관람과 더불어 실제적인 관객의 참여적 역할을 통해 완성되는 전통예술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로 참여동기 요인을 개발하였다. 참여는 관람

과 체험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참여동기를 대동성, 휴식 추구성, 교육성, 신명성, 신기성, 문화예술성, 정체성의 7가지 동기로 추출하였다. 이는 타 분야의 공연예술의 참여동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대동성, 신명성, 정체성 등을 요인화 한 것을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7].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주로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예술의 참여분야가 다양하지 않고 80% 이상 농악(풍물, 사물놀이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엄밀하게 구분하면 이는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이 아닌 실제적인 체험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국악공연 관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의 연구결과이다. 즉 일반적인 국악공연의 관람 결정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타당도 관련 증거는 적절한가?
 연구문제 2: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신뢰도 관련 증거는 적절한가?
 연구문제 3: 한국 성인들의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악공연 및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7명(무용가, 평론가, 연출가, 공연기획자, 예술감독, 국악 타악연주자, 예술행정가)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6일 부산대학교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KJ(Kawakita Jiro)법을 이용한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국악공연의 관람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관람 결정요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총 65문항을 임의표집된 한

국 남·여 성인 527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부산과 전북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200명, 온라인으로 327명을 설문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을 제외한 총 518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중 남자는 206명(39.8%), 여자는 312명(60.2%)이며, 연령별 분포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08명(20.8%),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91명(36.9%),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146명(28.2%),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67명(12.9%),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6명(1.2%)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18명(22.6%), 대학교 졸업이 347명(67.0%), 대학원 졸업 이상이 53명(10.2%)이었다.

3. 조사방법 및 연구절차

KJ법을 이용한 개방형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조사협력자 7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실시하는 목적은 조사협력자들이 국악공연의 소비자 유형별 관람 결정요인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봄으로써 개방형 설문에 충실한 응답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폐쇄형 설문의 문항 작성 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악공연의 소비자 유형별 관람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요인과 KJ법 조사에 의해 나타나지 않은 요인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국악공연의 소비자 유형별 관람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KJ법을 이용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KJ법은 일본의 문화 인류학자 가와기타 지로(1920~2009)가 현장 조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발한 기법으로 그의 이름 Kawakita Jiro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붙여진 명칭이다. KJ법은 개인, 집단, 조직을 불문하고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범주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는 창의성 향상 훈련기법의 하나로서,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 발상법이다. 아이디어를 내는 참가자 전원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카드에 적어내면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는 카드를 분류하고 범주화한 후, 범주화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다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그룹핑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해 나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GI조사협력자를 대상으로 인간행동의 이

면에 있는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자들이 KJ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진 카드에 응답을 문장 형식으로 적게 하였다. 문장 형식으로 작성된 카드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1차 분류를 진행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다시 묶는 범주화 작업을 2차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더 큰 상위 범주로 묶는 그룹핑 작업을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4.1 KJ법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카드)를 검토하여 그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는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KJ법에서 진행하는 범주화는 밝혀진 기존 개념에 따라 단순히 분류하는 방법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역으로 그 반대로 수행하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범주와 요인을 생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사한 의미로 묶어 분류된 카드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라벨명을 붙임으로써 개념을 형성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개념을 형성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라벨명을 검토 및 분석하여 유사한 라벨명끼리 묶어 상위그룹 카드를 작성하는 범주화 작업을 진행한다.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정적 요인분석 수행

KJ법을 이용한 개방형 설문과 자료의 범주화 작업을 거쳐 도출된 개념요인들을 바탕으로 폐쇄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설문 결과 값을 토대로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고, 확정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이전에, Kaiser-Meyer-Olkin(KMO)의 표준적합도(measuring of sampling adequacy)지수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 가능성을 확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OMAX 회전)으로 요인구조를 각각 회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때, 모형의 적절성 평가는 카이제곱

검정 및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적합도지수(Normed fit index: NFI), 터커-루이스 지수(Tucker-Lewis index: TLI), 비교적합도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이용하였다.

4.3 일반적 경향

마지막으로 개발된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KJ법을 이용한 개방형 설문 결과 분석

개방형 설문은 인간행동의 이면에 있는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현장의 복잡성을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시도로써 FGI법을 실시한 조사 협력자 7명을 대상으로 KJ법을 이용해 개방형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 협력자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FGI 조사협력자

	성별	연령	직업
Info.1	남	54세	평론가
Info.2	여	52세	예술감독
Info.3	남	44세	공연기획자
Info.4	남	44세	예술행정가
Info.5	남	44세	연출가
Info.6	여	43세	국악 타악연주자
Info.7	여	23세	무용가

개방형 설문은 <국악공연 관람을 선택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 당 총 15개의 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총 105개의 응답이 적힌 카드를 직접 수거하였다.

2. KJ법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작업 결과

총 105개의 응답이 적힌 카드의 문항들은 KJ법에 의

한 자료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8개 요인, 총 65문항으로 정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척도개발 경험이 풍부한 박사학위 소지자 1인, 문화예술경영 관련학과 박사과정생 1인, 국문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탐색을 위한 설문 문항의 적합성, 문장의 표현 등을 검토한 후,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작성되었다. KJ법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작업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KJ법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작업 결과

범주	문항
개인적 요인 범주 (8)	1. 국악기를 배운 적이 있어 공연에 관심이 높아서 관람한다
	2. 양악보다 낫설지 않아서 구매한다
	3. 전통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공연일 때 티켓구매를 결정한다
	4. 평소에 좋아하던 곡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을 때 공연을 선택한다
	5. 평소에 신뢰하는 단체(국립국악단, 시립국악단 등)의 활발한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6. 국악성악에 관심이 많아서이다
	7. 민속음악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8. 순수하게 즐기고 싶어서 간다
감성적 요인 범주 (3)	1. 반복되는 음악(선율과 리듬)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를 찾는다
	2. 국악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한국 고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3.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명성- 실력 요인 범주 (7)	1. 공연 기획자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한다
	2. 출연자의 우수성, 수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다
	3. 유명인이 출연할 경우 관람한다
	4. 유명한 단체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해 공연을 선택한다
	5. 출연진의 활동영역이 넓을수록 선택한다
	6. 출연진의 이력이 매력적일 경우 선택한다
	7. 뛰어난 연주자의 기량을 보고 싶다
마케팅 요인 범주 (14)	1.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을 보고 공연구매를 결정한다
	2.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였을 때 선택한다
	3. 티켓 가격이 적절해서 구매를 결정한다
	4. 무료 공연일 경우 공연을 선택한다
	5.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을 유도할 때 관람을 결정한다
	6. 초대권을 받았을 경우 관람한다
	7. 명절, 연휴 기간 등에 생긴 개인적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관람한다
	8. 여행패키지 상품(관광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관람한다
	9. 홍보물이 독창적이고 내용이 흥미롭다
	10. 공연 주최측(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등)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면 선택한다
	11. 공연 홍보물의 상세한 내용구성 정도에 따라 선택한다
	12. 야외공연 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13. 국악장르는 명절과 같은 우리 절기에 맞는 공연을 하기 때문이다
	14. 생활예술의 확대로 이어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연장 환경 요인 범주 (5)	1. 타 지역 공연이 아니라 거주지 주변의 공연이라서 구매한다
	2.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의 시설 수준이 구매결정을 좌우한다
	3. 공연장의 이미지가 좋고 언저튼 갈 수 있어서 관람하게 된다
	4. 주차가 용이하면 편안하게 선택하게 된다
	5. 국악공연에 적합한 공연장 또는 공연장소이다

범주	문항
공연 내용 요인 범주 (17)	1. 공연이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3.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확언하기 위해 간다
	4. 레퍼토리를 다양화하여 구성이 다채롭다
	5. 시민 친화적인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6. 무대 연출력이 돋보인다
	7.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8. 신명 나고 흥겨움을 유발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9. 기획 의도가 얼마나 관심을 끄는지에 따라 선택한다
	10. 퓨전국악에 대해 알고 싶기 때문이다
	11. 부대행사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재미있다
	12.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일 경우 결정한다
	13.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공연이기 때문이다
	14. 극장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한다
	15. 젊은 국악인의 열정이 느껴지는 공연이다
	16. 대중적인 국악공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새로운 연주자에 대한 흥미 때문이다
사회 관계 요인 범주 (6)	1. 관람자의 직계가족 또는 친족 관계가 구매를 좌우한다
	2. 지인이 출연하면 관람한다
	3.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하기 위해 구매한다
	4. 공연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친분 때문에 티켓을 구매한다
	5.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이에게 소개하기 위해 구매한다
6. 티켓구매를 통해 출연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한다	
정보적 요인 범주 (5)	1.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 관람을 결정한다
	2.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 음악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한다
	3.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감성을 북돋울 수 있어 공연을 선택한다
	4. 우리의 것이므로 봐야한다는 의무감이 들어서 관람을 결정한다
	5.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변화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3.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 남녀 성인 527명을 대상으로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하위요인들을 추출하였고,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은 먼저 자료의 요인분석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의 표준적합도(measuring of sampling adequacy) 지수를 측정한 결과 0.941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값이 13355.787(p < .001)로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였으며, 회전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Pro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상관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주성분 분석(Promax회전)법으로부터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은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최종적인 요인행렬과 요인상관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리고 회전시키기 전의 35문항의 분산을 설명하는 누적 기여율은 59.787%로 나타났다.

표 3.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주성분 분석, Promax회전)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1	36	.863	-.143	-.079	.043	.030	.015
	24	.773	-.075	.198	-.072	-.024	-.106
	35	.768	-.099	-.216	.088	.022	.214
	37	.682	.115	-.066	-.063	-.051	.031
	23	.663	-.114	.201	.044	.065	-.082
	34	.597	.156	-.179	-.048	.069	.104
	25	.580	.097	.175	-.081	.120	-.058
	32	.507	.121	.117	.061	-.067	.091
	26	.441	.150	.235	-.141	.125	.047
	43	.414	.080	.089	.348	.008	-.163
46	.368	.177	.057	.304	-.021	-.147	
요인2	55	-.164	.854	.067	.040	.087	-.026
	56	-.006	.841	-.178	-.047	.162	.045
	58	.107	.711	-.045	.173	-.023	-.121
	54	.091	.696	-.155	-.162	.300	.039
	38	.117	.664	.056	.067	-.187	-.120
	52	-.257	.601	.078	.145	.347	.018
	6	.128	.502	.279	-.156	-.271	.151
	7	.138	.488	.303	-.169	-.179	.096
	39	.364	.423	-.090	.113	-.119	.029
	요인3	12	.046	-.078	.861	-.051	.140
11		-.068	-.074	.851	-.140	.173	.130
10		.090	-.049	.795	-.042	.033	-.086
13		-.143	.226	.684	.131	-.070	.061
14		-.181	-.070	.574	.474	-.029	.132
41		.331	-.012	.360	.229	.056	-.110
요인4	45	-.105	.084	.015	.872	-.044	-.009
	44	.117	-.101	-.094	.781	.105	.060
	42	.200	.176	-.161	.486	.043	.162
요인5	51	-.106	.103	.128	.022	.797	-.009
	49	.117	-.075	.111	.071	.707	.060
	48	.216	.094	.054	-.033	.643	.162
요인6	17	-.060	.053	-.124	.044	.009	.918
	16	.104	-.099	.113	-.022	.097	.780
	15	.164	-.071	.240	.095	-.122	.560
요인간 상관	요인1	-	.605	.623	.570	.246	.442
	요인2	.065	-	.502	.485	.204	.284
	요인3	.623	.502	-	.487	.137	.329
	요인4	.570	.485	.487	-	.215	.232
	요인5	.246	.204	.137	.215	-	.210
	요인6	.442	.284	.329	.232	.210	-

[표 4]에는 요인명, 측정문항, 문항 수, α 계수를 제시하였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α 계수는 .94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α 계수는 .755 ~ .895로 내적 합치도의 관점에서 볼 때,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6개의 요인 명은 각각 요인별 측정문항을 총칭할 수 있도록 명명하였다. 요인1은 공연 내용, 방식,

대상, 홍보물, 주변 환경 등의 요소를 통해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흥미 유발요인'이라 지칭하였다. 요인2는 한국 고유의 감성, 안정감, 예술 감성, 순수성, 신명과 흥겨움 등의 정서적 측면과 교육, 공부, 소개, 변화양상의 탐구와 같은 정보적 측면이 관련된 요인들로 추출되어 '정서·정보적 요인'이라 지칭하였다. 요인3은 제작진의 실력 또는 연출력, 출연자의 유명도나 실력, 활동 범위와 출연 이력 등을 통해 공연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로 묶여있어 '명성·실력요인'이라 지칭하였다. 요인4는 공연에 있어 새로운 시도, 퓨전국악과 같은 새로운 장르로의 변화와 참신한 구성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창의성요인'이라 칭하였고, 요인5는 공연의 지인 출연 여부 등 사회적인 관계 형성과 관련되어 있어 사회관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요인6은 적절한 티켓 가격, 공연의 유·무료 여부, 할인권 또는 초대권 등의 요소로 구분되어 '가격합리성요인'이라 지칭하였다.

표 4.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요인명, 측정문항, 문항 수, α 계수

요인 명	측정문항	문항 수	α 계수
흥미유발요인	36 레퍼토리를 다양화하여 내용이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을 때 선택한다 24 공연 홍보물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내용이 흥미롭게 느껴지면 선택한다 35 공연이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일 경우 선택한다 37 대중적인 국악공연을 만나고 싶어서 선택한다 23 공연 홍보물의 상세한 내용과 훌륭한 구성이 구매 결정을 좌우한다 34 주차가 용이하면 편안하게 선택한다 25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공연을 선택한다 32 국악공연을 관람하기에 적합한 공연장(시설수준, 환경)일 경우 선택한다 26 언론을 통해 공연정보를 접하였을 때 선택한다 43 기획 의도가 얼마나 관심을 끄는지에 따라 공연을 선택한다 46 젊은 국악인의 열정이 느껴지는 공연이면 선택한다	11	.895
정서·정보적 요인	55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 음악 등에 관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 56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 감성을 북돋을 수 있어 공연을 선택한다 58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변화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선택한다 54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 관람을 결정한다 38 순수하게 국악 그 자체를 즐기고 싶어서 간다 52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이에게 소개하기 위해 구매한다 6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공연을 선택한다 7 국악에만 있는 한국 고유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 공연을 선택한다 39 신명, 흥겨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선	9	.874

요인명	측정문항	문항수	α 계수
	택한다		
명성·실력요인	12 제작진의 실력이 우수할 때 공연을 선택한다 11 유명인이나 유명한 단체가 출연하는 경우 공연을 선택한다 10 출연자의 연주 실력이나 기량이 뛰어날 경우 공연을 선택한다 13 공연 출연진의 활동 범위와 영역이 넓으면 선택한다 14 공연 출연진의 이력이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경우 선택한다 41 무대 연출력이 기대될 경우 공연을 선택한다	6	.864
창의성요인	45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공연이면 선택한다 44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퓨전국악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일 경우 선택한다 42 체험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재미있게 느껴질 때 선택한다	3	.755
사회관계요인	51 공연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친분 때문에 공연을 선택한다 49 지인이 출연할 경우 공연을 관람한다 48 관람자의 직계가족 또는 친족 관계가 구매를 좌우한다	3	.763
가격합리성요인	17 무료공연일 때 관람을 결정한다 16 할인권 또는 초대권을 받으면 선택한다 15 공연의 티켓가격이 적절하면 선택한다	3	.788
	전체 문항 수 및 α 계수	35	.947

둘째,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구조를 알아보고 더불어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장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6요인 35문항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적합지수, 절대적합지수,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에 대한 확장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 [표 6], [그림 1]과 같다. 탐색적 요인에서 도출된 6요인 35문항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RMSEA, CFI, IFI는 모두 좋은 적합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IFI와 CFI 값은 0과 1사이이며, 0.9 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 값을 평가할 때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05~0.08 사이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0.08~1.00이면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5]. 본 연구의 확장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FI는 .996, CFI는 .996, RMSEA는 .032로 나타나 좋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6요인 35문항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변수가 각 하위 척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계산한 결과, 개념 신뢰도는 .858로 나타났고, 분산추출지

수는 .511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고 각 요인에 적절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표 5.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 모형의 적합도 (N=518)

모델	df	χ^2	IFI	CFI	RMSEA
6요인 35문항	9	13.858	.996	.996	.032

표 6.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치

구분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임계치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 지수
흥미유발요인→관람결정	.916			.858	.511
정서·정보적요인→관람결정	.758	.036	20.807***		
명성·실력요인→관람결정	.761	.026	20.998***		
창의성요인→관람결정	.706	.014	18.755***		
사회관계요인→관람결정	.512	.017	12.246***		
가격합리성요인→관람결정	.559	.016	13.65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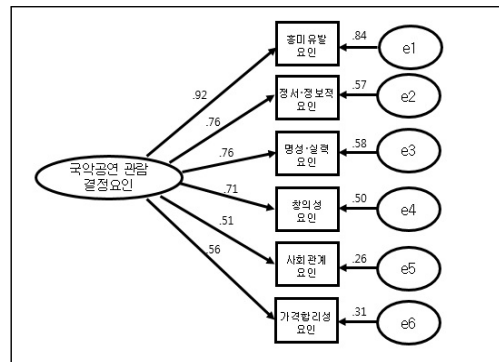


그림 1.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구조

4. 한국 성인들의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의 일반적 경향

한국 성인들의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출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표 7. 한국 성인들의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의 일반적 경향 (N=518)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평균	표준편차
흥미유발요인	3.39	.65
정서·정보적 요인	3.13	.73
명성·실력요인	3.27	.77
창의성요인	3.29	.80
사회관계요인	3.23	.87
가격합리성요인	3.62	.83

일반적인 한국 성인들은 국악공연 관람 결정의 경향은 ‘가격합리성요인(응답평균값 3.62)’, ‘흥미유발요인(응답평균값 3.39)’, ‘창의성요인(응답평균값 3.29)’, ‘명성·실력요인(응답평균값 3.27)’, ‘사회관계요인(응답평균값 3.23)’, ‘정서·정보적 요인(응답평균값 3.13)’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최근 “사람과 삶”에 대한 가치가 대두됨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이 여가 활용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장르 중 하나인 국악은 시행 횟수, 관람객 수가 적고 유료관람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악공연 관객을 확보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 개발 후 그 타당화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후 관람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KJ법을 이용한 개방형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KJ법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작업을 통해 8개 요인, 총 65 문항이 도출되었다.

유형화 된 8개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감성적 요인, 명성·실력요인, 마케팅요인, 공연장 환경요인, 공연내용요인, 사회관계요인, 정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가장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공연내용요인(17문항)에는 주로 역동성, 흥미 유발, 다양한 레퍼토리, 퓨전국악, 자유로운 표현, 열정, 대중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롭고 신선한 국악에 대한 기대감”이 문

항에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요인(8문항)에는 국악이 지닌 전통성, 평소의 관심도, 익숙함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국악이 지닌 고유함”이 각 문항에서 잘 드러났다. 두 번째로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마케팅요인(14문항)은 크게 “홍보물 또는 홍보매체를 통한 관심 유도”, “티켓 가격의 적절성”, “개인적 또는 가족과의 여가를 보내기 위한 방안” 등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다음 순인 명성·실력요인(7문항)은 출연진 또는 기획자의 명성과 실력, 유명도, 넓은 활동영역, 이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연의 질적 측면에 대한 소구”가 잘 드러나 있었다. 공연장 환경요인(5문항)은 공연환경의 시설수준, 주차, 거주지와 거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편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사회관계요인(6문항)은 지인이나 가족의 출연, 외국인 또는 관심자에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연관계자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정보적 요인(5문항)은 궁금증 해결, 교육, 공부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자발적인 측면”과 “당위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감성적 요인(3문항)은 한국 고유의 감성, 안정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심신안정 및 편안함의 추구”로 보였다.

둘째,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6개 요인 35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은 흥미유발요인, 정서·정보적 요인, 명성·실력요인, 창의성요인, 사회관계요인, 가격합리성요인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흥미유발요인은 레퍼토리(프로그램), 기획의도, 언론매체나 홍보물, 공연환경 등의 수단을 통해서 대중적이고 재미있고 역동적인 공연의 지향성과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다소 정적이고 고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대조를 이루며 국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재미와 흥미에 대한 선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 홍보물의 상세한 구성과 독창적인 디자인, 언론매체 노출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식 등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홍보물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시도와 함께 홍보매체의 확장, 더욱 적극적인 홍보방안 개발 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더불어 주차, 공연장 시설 등 공연 관람에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역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공연장 편의성 역시 국악공연 관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흥미와 재미의 요소로 느끼는 부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료 주차대행 서비스, 공연 관람 전후 공연장 주변 환경 투어 이벤트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정보적 요인은 한국적 정서, 안정감, 흥겨움 등의 정서적 기대감과 교육이나 소개 또는 알림과 같은 정보적 측면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악공연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통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연 프로그램이나 악기 혹은 연주자 구성 그리고 무대나 홍보물 구성 등에 있어 국악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 명성·실력요인은 출연진이나 제작진의 명성과 실력이 유명도, 넓은 활동영역, 이력, 무대 연출력 등에 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으로 공연에 대한 사전 검증 또는 공연의 품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악공연뿐 아니라 클래식, 뮤지컬 등 타 장르의 공연 관람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성요인은 실험정신의 발휘, 퓨전 또는 창작공연과 같은 새로움에 관한 것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실험정신이 발휘된 공연프로그램이나 타 장르와 결합한 형태의 크로스오버 화한 공연 또는 체험프로그램이나 부대행사 등을 연계한 보다 입체적인 공연구성 등에 대한 선호이다. 이는 공연에 있어 첨단화된 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획적 요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관계요인은 공연관계자와의 관계, 지인의 출연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특히 FGI와 KJ법을 통해 자료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료 관객 비율과 초대권 발행 비율이 높은 장르가 국악이라는 현재 상황이 사회관계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격합리성 요인은 합리적인 티켓 가격 또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환경 또는 조건의 제공을 의미한다. 이는 국악공연을 관람료가 높지 않은 저가공연이거나 무료공연으로 기대하는 이가 많음을 나타내며 티켓 가격의 책정에 있어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역시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공연 관람결정요인 척도의 구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일반 한국성인의 국악공연 관람 결정시 흥미유발요인, 명성·실력요인, 정서·정보적요인, 창의성요인, 가격합리성요인, 사회관계요인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중 가격합리성요인과 흥미유발요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서·정보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등 인구통계적 변수와 공연 관람 횟수, 국악공연 관람 횟수, 국악 교육 및 국악동호회 활동 여부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관여도와 같은 변수가 공연 관람결정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밝히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행복지수 또는 삶의 질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편타당한 일반 성인의 국악공연 관람 결정요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병행하여 연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또한 공연예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의 FGI법, KJ법 등의 방법을 활용한 개방형 설문 도출, 이를 범주화하여 보편타당한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www.mcst.go.kr, 2018.

- [2]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공연계 주목해야 할 키워드 6,” www.gokams.or.kr, 2019.
- [3] 지역문화진흥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 여가생활 변화 실태조사,” www.rcda.or.kr, 2018.
- [4]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www.korea.kr, 2016.
- [5]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 www.korea.kr, 2018.
- [6]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8 공연예술 실태조사,” www.gokams.or.kr, 2018.
- [7] 박현승, 허식, “전통예술 참여동기 요인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2013.
- [8]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pp.17-25, 2009.
- [9] 이재화, *창작국악 공연유형에 따른 관람만족 및 관람가치에 대한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1-44, 2010.
- [10] 서혜윤, *한국음악공연 관객이 동기와 공연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1] 문갑수, *부산지역 뮤지컬 관객의 만족도 형성에 관한 연구: 마케팅믹스와 관람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6-38, 2010.
- [12]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연구, 뮤지컬 관람객 조사보고서,” www.gokams.or.kr, p.73, 2018.
- [13] 김보름, 천혜정, “국악공연 관람객의 관람동기 및 관람만족도가 재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 연구, 제14권, 제1호, 2016.
- [14] 김지영, “예술관광으로서 클래식 공연의 관람동기 분석: 영리, 비영리 공연 비교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21권, 제1호, 2009.
- [15] 홍세희, “특별기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저 자 소 개

전 주 희(Juhee Jeon)

정회원



- 2009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음악학과(문학석사)
- 2018년 2월 :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박사수료)
- 2012년 2월 ~ 2017년 2월 : 고창문화의전당 공연기획담당
- 2017년 3월 ~ 현재 : 동래문화회

관 공연기획담당

<관심분야> : 문화예술, 예술경영, 공연기획

장 인 희(Inhee Chang)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가정학석사)
- 2012년 9월 : 일본 국립 고베대학교 대학원 발달심리전공(철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 2019년 4월 ~ 현재 : 덕성여자대

학교 발달지원센터 상임연구원

<관심분야> : 발달심리, 창의성, 문화예술교육

최 배 석(Baesuk Choi)

정회원



- 1984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1994년 2월 : 뉴욕시립대학교 TV/Radio학과(석사)
- 2012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 1998년 3월 ~ 2004년 2월 : 단

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화, 문화예술콘텐츠, 소통심리학